“본성을 챙기는 것이 ‘선명상’입니다”

국제포교사회 열린 대법회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가 1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금강 스님과 함께하는 열린 대법회’를 봉행했다. 국제포교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린 대법회를 열어 불교계 ‘명사’를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이날 법석에 앉은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은 ‘선명상, 참사람 향기’를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이날 법문 내용을 정리 ·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금강 스님은…17세에 대흥사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중앙승가대학, 백양사 운문선원 등에서 공부했다. 2000년부터 20여 년 동안 미황사 주지를 맡아 참선수행–참사랑 향기,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수행 ·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14년부터는 행복공장 홍천 수련원 무문관에서 간화선 지도를 해오고 있다. 현재 조계종 교육위원장, 중앙승가대 교수,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선명상위원회 초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국제포교사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던 신행단체이기 때문에 오늘 수행에 도움이 될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비, 깨달음, 자신에 대한 믿음, 마음, 수행, 선(禪)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화두 한 자락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비입니다. 선명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와 달라이라마의 ‘자비’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저에게 증조할아버지뻘 되는 스님인 만암 스님의 시입니다.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하셨던 분입니다. 스님의 시를 보다가 자비심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은 어디에 막힘이 없이 흘러간다.” 봄바람은 남도에서 이 서울, 저 북녘까지 어디에도 막힘없이 붑니다. 그러면 곳곳에 붉은 꽃, 하얀 꽃을 피워냅니다.

“이 봄바람의 도리를 안다면 마음은 점점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봄바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언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까? 자기가 기대하는 시기에 봄바람이 불면 좋을 텐데요. 하루 늦어지고 이틀 늦어지고 3일 늦어지고 점점 기다리는 것이 늦어진다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감정은 원한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죠. 중생은 봄바람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보살은 봄바람입니다. 국제포교사 여러분은 봄바람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는 조선시대 서산 대사의 직계제자, 소요 대사의 시입니다.

“개개의 얼굴에 밝은 달처럼 환한 빛, 사람 사람마다 바람에 맑은 바람. 거울 속 모습을 깨뜨리고 그림자 자취마저 없앤다면, 새가 한 마리 가지 위에서 노래하니 꽃이 피네.”

사람마다 얼굴이 있습니다. 물건마다도 얼굴이 있구요. 장소마다도 얼굴이 있습니다. 각각의 얼굴에서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건 대단한 겁니다. 사람마다 맑은 바람이 분다는 건 내 기준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 거울 속 모습은 깨뜨려야죠. 과거에 행적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새가 노래하고 가지에 꽃이 피듯이,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게 합니다.

달라이라마의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낸 것이죠. 이 자비는 우리를 불성으로 이끌게 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것일까요? 육조 혜능 대사는 나무꾼이었다가 어느 스님의 〈금강경〉 독송 소리를 듣고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혜능 대사는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 뵙고 그 밑에서 8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하죠. 이후 홍인 대사가 혜능 대사를 방으로 불러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해줍니다. 혜능 대사는 그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은 스님은 “일체만법이 나의 본래 성품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게송을 읊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자신의 자성, 본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화엄경〉 첫 구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풍경과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고 땅을 보자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 같았으며, 보리수는 보석으로 되어 있었고 가지와 잎들은 무성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일 겁니다. 이 장엄한 깨달음의 경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 “‘선명상’ 연기법에 기반해
> ‘크기’에 비례하는 분별심
> ‘제로 마음 상태’ 이르러야
> 밝고 청정한 ‘본성’에 계합”

세 번째는 대신심(大信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육조 혜능 대사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모든 중생이 여래와 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건만 분별 망상으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 문장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마 대사도 “중생과 성인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객진번뇌로 그것을 알지 못하니 이를 없애려고 한다면 앉아라”고 했습니다.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을 살펴보면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 잠깐도 생멸한 적 없다.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밝고 신령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육조단경〉을 보면 우리의 본래 성품은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라고 했습니다. 무념, 분별하기 전 마음은 고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평화롭습니다. 무상은 어떤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자꾸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로 인해 잘못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본다면 모든 순간이 행복해집니다. 무주는 ‘나’라는 생각, 특히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입니다. 자성(自性), 본마음은 고요하고 생생히 살아있고 자유롭습니다.

이제 수행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태국의 고승 아잔 차 스님에게 〈마음〉이라는 두꺼운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책에는 “마음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 마음은 특별한 것 없이 깨끗하고 마음 안은 이미 고요하다. 그렇지 못한 것은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달마 대사의 〈혈맥론〉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너그러운 마음은 나의 본심이고, 옹졸한 마음은 본심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옹졸한 마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항상 이 너그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명상’에서는 연기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없어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도 생깁니다. 사람들은 분별합니다. 호오(好惡)처럼 두 가지를 비교하고 차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탐진치(貪瞋癡)가 일어납니다. 모든 분별하는 것에는 ‘크기’가 비례합니다. 1만큼 좋아하면 1만큼 싫어하죠.

그런데 ‘제로’인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제로 상태일 때,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그래서 늘 제로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제로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 ‘선명상’입니다.

이제 선(禪)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조 도신 스님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승찬 스님은 해탈시켜달라는 도신 스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묶어놨느냐.” 여러분들도 늘 구속됐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누가 여러분을 속박했습니까? 돌이켜 비춘다, 반조(反照)해 보십시오. 아무도 속박한 이가 없습니다.

도신 스님의 가르침 중 하나가 ‘수일불이(守一不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학교 가기 전 들판에다 말뚝을 박고 메워두면 하루 종일 그 주변의 풀을 먹어요. 소가 어디 가지 않고 말뚝 주변만 돕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는 말뚝이 필요하죠. 그러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수일불이’고 바로 간심(看心)이고 화두를 드는 기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려시대 나옹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양주 회암사에 계실 때 많은 스님들이 나옹 스님과 공부하기 위해 절로 모여들었습니다. 대웅전에 설법을 마친 나옹 스님은 대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고 아는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오, 한 물건도 아닌 이것은 무엇인고.”

가장 깊고 강력한 의문이 바로 ‘화두’입니다. 이 의문을 품고 있으면 늘 자기 마음을 챙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지속이 되면 마음챙김은 물론 삼매도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결국 자기 본성과 계합하게 됩니다. 화두를 챙기면 본성을 챙기게 됩니다. 본성을 챙기는 것이 곧 ‘선명상’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5학년도 학점 은행제 신(편)입생 모집안내

(교육부 학위 인정 교육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전형일정 | 2025년 1월 1일 ~ 2월 28일

■개 강 | 2025년 3월 첫째주 3월 4일 (화요일)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 향 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